

◎ 중앙지·지방지 주요기사 내용

진북연립신문

2022년 06월 07일 화요일 016면 기획

마음 따듯한 나운2동



사랑의 단비 내리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체가를 후원할 시작한 군산시 나운2동 '행복나눔공유공간'이 코로나19에 따른 일상 속 위기가정에 필요한 복지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차별적 기부로 운영되는 공유공간을 통해 위기가정에 필요한 식품 및 생활용품 등 무상으로 지급해 생계안정 지원과 복지향상을 이루고 있다. 매일 10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공유공간은 10개월 만에 2500명에서 6500만명 상당의 식품 및 생활필수품을 무상으로 지원해 지역사회에 사랑의 연대감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속적인 나눔을 통한 지역사회공동체 의식도 대폭 고양해 주민들이 참여하게 되는 자발적 참여 기부 문화도 행을 제시하고 있다. /편집자주



●정자로 읽을 주제를 알도록 하기 위해 쓰는 글로써, 핵심이 되는 공유공간도 있다.

나운2동 주공4차 상가 내 개장된 행복나눔 공유공간은 나운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체관리공단, 찾아가는 마이홈센터, 나운2동 행정복지센터 등 민관협력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들의 생계안정을 돕기 위해 기부물품을 무료로 지원함으로써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공유공간 이용대상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실직, 휴직, 질병 등으로 인해 경제 위기에 처한 가구 및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주민으로 공유공간에 직접 방문하면 1인당 월 사용포인트(5점)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해 무상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처럼 공유공간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경제 피해 계층 및 도움이 필요한 복지대상자들에 대한 민선지원으로 주민들과 함께하는 복지안전망 구축에 일조하고 있다.

●공유공간, 주민 및 기업에 자발적 기부참여로 순환해 나감

공유공간은 주민과 단체 및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 참여로 공간에 식품 및 생활 용품을 채워 분배의 위기에 처한 위기가구가 마음 편히 물품을 가져갈 수 있는 나눔 시스템이다.

군산나운2동 행복나눔 공유공간 주민·단체등 자발적 기부참여

6500만원 상당 기부물품 모여 취약층 무상지원복지안전망 구축

위기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주민들과 단체 및 기업들이 공유공간에 자발적 기부물 하고 있으며 이런 자발적 기부는 사회적 나눔의 가치 즉 소유가 아닌 공유의 가치로 전환하는 계기가 돼 지역사회 내 나눔의 가치가 확산돼 사회적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다. 공유공간은 안경원 의원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물품 지원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주)대용메이커, 오션팩스파 주민 및 기업의 지속적인 물품 기부를 통해 5월 말 기준 6500만원 상당의 기부물품이 공유공간에 모였다.

공유공간 이용대상자 240명 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92%가 공유공간

이용에 만족했으며, 제공되는 물품이 더한 만족도 또한 이용자변화가 만족을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 이렇듯 행복나눔 공유공간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나눔 공유공간,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공공기관, 공공복지의 한계 속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돕기 위해 주민, 단체, 기업 등과 손잡고 연대와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의 응집력을 높일 방침이고 있으며 장기대기 때문에 문제점을 없애고 이용절차의 간소화, 이용대상자 확대로 사회적약자층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이로 인해 나운2동은 군산이 나눔문화 선도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행복담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남구 나운2동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하고, 허벅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 대처 나간다면 '민관협력으로 구축한 복지안전망과 나눔문화'에 참여해 주민 모두 분담해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 기부와 나눔이 공존하는 따뜻한 나운2동을 만드는데 더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군산 뉴메카 기자

0000000000000000



◎ 중앙지·지방지 주요기사 내용

전북의소리

2022년 06월 08일 수요일 012면 기획



어려운 이웃에 희망을 선물하다

군산 나운2동 지사협, '행복나눔 공유공간' 운영... 자발적 기부 참여
코로나19 여파 위기 가정 생계안정 위한 식품·물품 무상 지원
이용절차 간소화·대상자 확대 등 복지정책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체가 된 이웃을 위한 군산시 나운2동 행복나눔 공유공간이 코로나19 여파로 일상 속 위기가정에 든든한 복지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방지 개사로 운영되는 공유공간은 통해 일거에 하인 주민들에게 식품 및 생활용품 무상으로 지급해 생계안정 지원의 방안을 마련해 주고 있다.

매월 1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공유공간은 10여월 만에 5200여여건 5500만원 상당의 식품 및 생활용품을 무상으로 지원해 지역사회의 따뜻한 사랑의 연대 정신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발적인 나눔을 통한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강화와 구성원들이 함께 주체가 되는 지역복지 참여 기회 문화 보급을 촉진하고 있다.

군산 나운2동 행정복지센터 중 행정안전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들의 안전안정을 돕기 위해 기부활동을 부추린 지원함으로써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공유공간 이용대상자는 코로나19로 발생 이후 실직, 휴업에 직면 등으로 인해 경제위기에 처한 가구 및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주민들로 공유공간에 직접 방문하면 1인당 월 상품포인트(8월)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해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처럼 공유공간은 코로나19로 생계난을 맞은 경제 피해 계층 및 도움이 필요한 복지대상자들에게 대한 관심 지원으로 주민들과 함께하는 복지안전망 구축에 일조하고 있다.

가구가 바뀔 뻔히 절름을 가져갈 수 있는 나눔 시스템이다.

위기에 처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들과 판매 및 기업들이 공유공간에 자발적 기부를 하고 있으며 이런 자발적 기부는 사회적 나눔의 가치 중 손쉬운 나눔 공유의 가치로 전파하는 계기가 되자 지역사회 내 나눔의 가치가 확산돼 사회복합성이 이뤄지고 있다.

공유공간은 안정된 기부금 연과 구축을 위한 운영 지원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군·대우·이마트, 오본백스)과 주민 및 기업의 지속적인 물품 기부금 통해 5월말 기준 680만원 상당의 기부물품이 공유공간에 모였다.

공유공간 이용대상자 20명만으로도 넓은 조사 결과, 응답자의 95%가 공유공간 이용에 만족했으며, 제공되는 물품에 대한 만족도 또한 이용자 91%가 만족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듯 군산나운 공유공간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패러다임을 제시하다

공공기관 공유공간의 현재 속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돕기 위해 주민, 단체, 기업 등과 손잡고 연대와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고 있으며 상가 앞 대가에 파문 문제점을 없애고 이용자들의 안전을, 이용대상자 확대를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이로 인해 나운2동은 군산시 나눔문화 확산 선도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공공의 두리는 행복을 주는 명소가 되고 있다.

남이로 나운2동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하고, 배려와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에 나갔다"며 "연관연계로 소통한 복지안전망과 나눔문화에 참여해 주민 모든 분들에게 있어 감사드리고 앞으로 기자의 나눔이 끊이지는 따뜻한 나운2동은 반드시 더 앞을 나간다"고 밝혔다.



※ '별개로 힘든 주민들 연도' 희망이 되는 공유공간 온 열다

나운2동 주공4차 상가 내 개장된 행복나눔 공유공간은 나운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대리인(주) 한빛은 마이이

※ 주민·기업의 자발적 기부 참여 '선순환 실현' 이끌어

공유공간은 주민과 단체 및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 해로 군산에 식품 및 생활용품을 채워 경제지 위기에 처한 이웃

※ 복지정책의 새로운

(군산·지정) 기자

◎ 중앙지·지방지 주요기사 내용

천안매일

2022년 06월 20일 월요일 016면 기획/특집

군산 나운2동, 사랑의 단비를 내려주다

‘행복나눔 공유공간’ 어려운 주민들에게 희망 선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체가 된 운동을 시작한 군산시 나운2동 ‘행복나눔 공유공간’이 코로나19 여파로 일상 속 위기가정에 든든한 복지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자발적 기부로 운영되는 공유공간을 통해 위기에 처한 주민들에게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무상으로 지급해 생계안전 지원의 발판을 마련해 주고 있다. 매일 10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공유공간은 10개월 만에 8,900명에게 6,500만원 상당의 식품 및 생활물품을 무상으로 지원해 지역사회 따뜻한 사랑의 연대 힘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발적인 나눔을 통한 지역 사회 공동체 의식증대와 구성원들이 참여 주체가 되는 자발적 참여 기부 문화 모임을 제시하고 있다. /편집자 주



■ 실제로 힘든 주민들 도와줌... 초입이 되는 공유공간 큰 몫

나운2동 주공4차 상가 내 개장된 행복나눔 공유공간은 나운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 대안사업단, 뜻이 같은 마이홈센터, 나운2동 행정복지센터 등 기관협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들의 생계안정을 돕기 위해 기부물품을 무상으로 지원함으로써 자립기반을 다지고 있다. 공유공간 이용대상자는 코로나19 피해 이후 실직, 휴직, 질병 등으로 인해 경제위기에 처한 가구 및 기초수급자, 저소득층을 주민들로 공유공간에 직접 방문하면 1인당 월

행정복지센터 등 민관협력으로 운영 경제위기 가구 및 기초수급자 등 대상 1인당 월 사용포인트로 물품 가격이 주민·단체 및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 5월말 기준 6500만원 상당 물품 모여 사회적 나눔 가치로 선순환 이뤄져

사생활보호를 위해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적당으로 가격할 수 있다

이처럼 공유공간은 코로나19로 피해받은 이웃을 경제 위기 계층 및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주역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는 복지안전망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 공유공간은 주민 및 기업의 자발적 기부참여로 선순환 실현

공유공간은 주민과 단체 및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 참여로 공간에 식품 및 생활물품을 채워 생계 위기

에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나눔 시스템이다. 위기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주민들과 단체 및 기업들이 공유공간에 자발적 기부를 하고 있으며 이런 자발적 기부는 사회적 나눔의 가치 즉 소유가 아닌 공유의 가치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 지역사회에 나눔의 가치가 확산된 사회적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다.

공유공간은 안정된 기부와 인프라 구축을 위해 물품 지원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주요대 원제비, 오른바스)과 주민 및 기업의 자발적 기부 물품 총액 2월말 기준 8,000만원 상당의 기부물품이 공유공간에 모였다.

공유공간 이용대상자 20명만 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90%가 공유공간 이용에 만족했으며, 제공되는 물품에 대한 만족도 또한 이용자 100%가 만족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듯 행복나눔 공유공간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행복나눔 공유공간, 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공유 공간은 공공기관 공공복지의 정책 추진에 따라 추진되며 주민들을 돕기 위해 주민, 단체, 기업 등과 손잡고 보다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의 응집력을 높일 것이라고 있으며 장기적 내거에 따른 기대를 갖고 있어 불변의 전승과, 이용대상자 확대를 위한 장기적 계획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나운2동은 군산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의 참여를 높이고자 하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남해군 나운2동장은 “군산시와 함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물품 내어 드리고, 이웃을 위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간협력으로 추진을 하지만 선장과 나눔문화에 대해 주민 모두 분담해서 같이 참여시키고 앞으로 계속 나눔이 꽃피는 따뜻한 나운2동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충남을 가다

